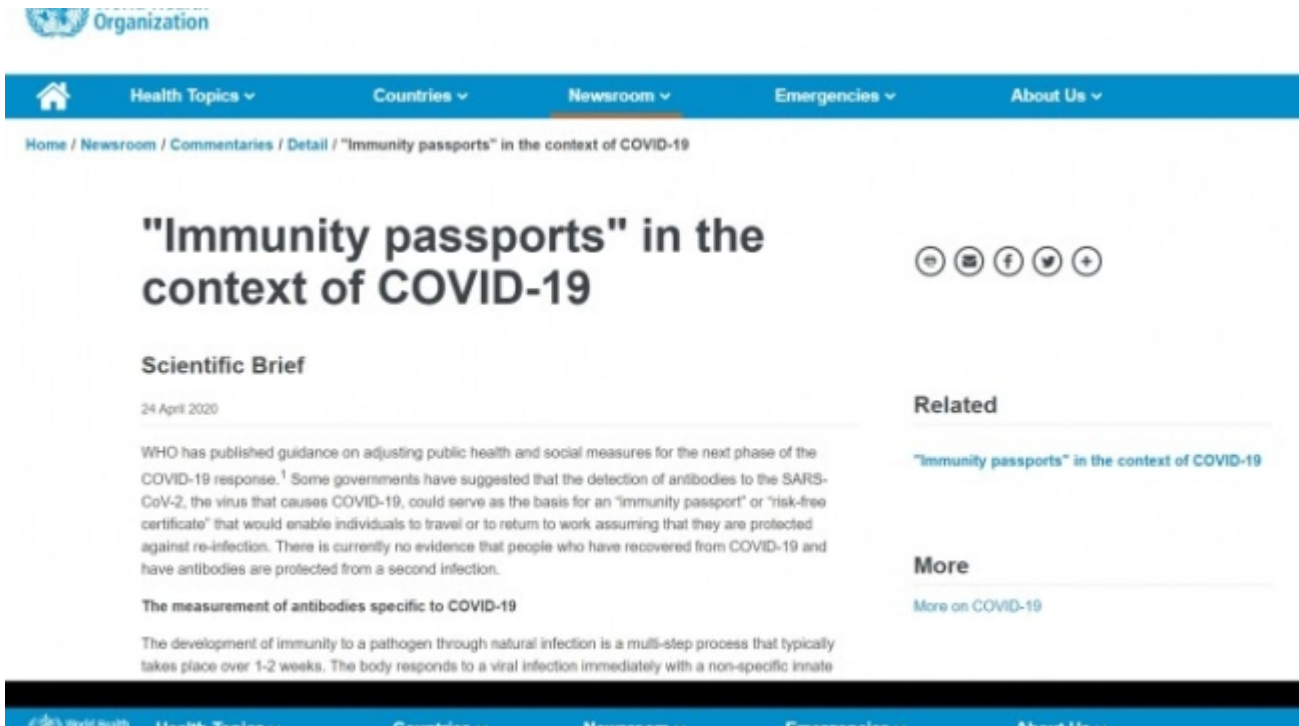




재양성 환자 증가 후폭풍... WHO "면역여권, 바이러스 확산 키울수 있어" 경고

기사입력 2020-04-26 18:40



세계보건기구(WHO)가 일부 국가들이 시행하거나 제안한 코로나19 면역여권, 무위험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에 제동을 걸었다. WHO 홈페이지 캡처

세계보건기구(WHO)가 일부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 완치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여행과 업무 복귀를 위해 발급하려는 면역여권과 무위험 증명서 발급에 대해 경고했다.

최근 한국을 비롯해 일부 국가에서 완치 환자 가운데 바이러스가 다시 검출되는 재양성 사례가 늘고 있고 항체 검출이 면역을 반드시 보장하지 않는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WHO는 이달 25일(현지시간) 공개한 사이언스 브리프에서 "일부 정부가 사회적 조치를 조정하면서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인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의 항체 검출이 개인의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면역 여권 또는 무위험 증명서의 기초가 된다고 제안했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에서 회복되고 항체를 가진 사람들이 재감염되지 않는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WHO는 "대유행 시점에서 '면역 여권' 또는 '무위험 인증서'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항체 매개 면역의 효과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양성 판정을 받아서 면역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중 보건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고 면역 여권이나 무위험 인증서 사용에 따라 바이러스가 지속해서 전파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을 비롯해 일부 국가들은 앞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쾌된 사람들이 재감염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사회적 활동 재개를 위한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에서 회복된 환자들에게서 다시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6일 0시까지 국내 재양성자는 26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들 바이러스가 재감염된 것이 아니라 재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테스트 결과가 잘못됐거나 죽은 바이러스가 환자 몸에 남아 나타난 현상이지만 숙주인 사람을 다시 위험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확률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서도 면역 여권이 경제활동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항체를 얻기 위해 자칫 자신을 자신을 감염시키는 일을 장려해 전염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까지 면역 여권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칠레 한 곳뿐이다.

WHO는 브리프에서 "2020년 4월 24일 현재 사스 코로나바이러스-2에 대한 항체의 존재가 인간에서 바이러스에 의한 재감염에 면역성을 부여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다"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반응에 대한 증거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코로나19 자원센터에 따르면 26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는 289만명, 사망자는 20만명이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미국과 영국 등 일부가 한때 대응책으로 고려했던 집단면역을 활용할 만큼 광범위하게 퍼져 인구 상당수가 항체를 가진 나라는 아직 없다고 보고 있다. 오스트리아 빈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인구의 1%만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종식에서 면역여권이 별다른 실효성에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정은경 중대본부장은 26일 브리핑에서 건강 여권, 면역증명서와 관련한 WHO의 입장과 관련해 항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감염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또 완벽한 면역력을 갖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논평한 게 있다"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항체검사의 결과에 대한 해석, 또 그런 항체가 방어력이 충분한지는 많은 국가가 현재 연구를 하고 있으므로 좀 더 명확한 증거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제한적으로 그런 제한점들을 활용해서 항체검사와 항체검사 결과에 대한 것을 해석하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태 기자 kunta@donga.com]

- ▶ 과학동아·어린이과학동아·수학동아 모든 콘텐츠 무료보기
- ▶ 네이버에서 동아사이언스 구독하기
- ▶ 동아사이언스에 가서 뉴스 더보기

© 동아사이언스 콘텐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584&aid=0000008544>
